

# 지속가능금융의 의의와 통계 현황

이상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차례 유행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하고, 국가도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최근 이사회내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장 환경 조성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ESG 금융 대출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정부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금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본 자료는 최근의 우리나라 지속가능금융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가능금융의 의의, EU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금융관련 제도 발전 현황을 살펴본 후 이용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금융그룹들의 지속가능금융통계를 추산하였다.

## I. 검토 배경

## II. 지속가능금융의 의의

## III. EU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금융관련 제도 현황

## IV. 지속가능금융 통계

### <참고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기획팀 부국장(email: shlee@bok.or.kr, phone:02-759-4313)

## I. 검토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와 기후리스크 증가로 우리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각하게 인식되는 가운데 빈부격차 해소, 지구환경 보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업이나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이에 부응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국가도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성장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sup>1)</sup>

금융기관들도 지속가능성장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최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등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을 통한 지속가능금융 대출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정부도 2021년 1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sup>2)</sup>을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후리스크<sup>3)</sup>는 금융시스템 전반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각국 중앙은행도 기후리스크 대응과 지속가능금융 통계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금융이 금융안정성,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도 2021.9월 「한국은행과 기후변화 대응」 자료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수행에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금융 통계는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재한데다 금융기관그룹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금융 성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ESG금융 구성항목이나 보고형식, 데이터의 포괄범위 등이 금융기관간에 상이한 편이다.

이에 본 자료는 최근의 우리나라 지속가능금융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가능금융의 의의, EU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금융관련 제도 발전 현황을 살펴본 후 이용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금융그룹들의 지속가능금융통계를 추산하였다.

1) 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에서 193개국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를 채택하였다. SDG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지속가능발전 참조

2) 금융위원회, 환경부 참여 녹색금융 추진 TF 3차 전체회의(2021.1.25.)

3) 기상이변에 따른 물리적 피해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악화 등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위험

〈참고 1〉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sup>4)</sup>

1987년 UN의 환경 및 개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을 언급하였으며 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의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목표(SDGs)를 제시하였다.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동 의안은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개 분야에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분야	목표(Goals)
인간 (People)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건강과 웰빙 (보건증진) 4. 양질의 교육, 5. 성 평등
지구 (Planet)	6. 깨끗한 물과 위생, 12.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존
번영 (Prosperity)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평화 (Peace)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파트너십 (Partnership)	17. 지구촌 협력

4)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 II . 지속가능금융의 의의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부문에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G20은 ‘지속가능금융’을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장적 준비(institutional and market arrangements)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상품,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sup> G20은 2030 아젠다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을 지원하는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에 「G20 지속가능금융실무그룹(G20 SFWG)」을 재창설하고 향후 추진할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금융을 금융부문에서 경제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하는 과정(process)으로 정의하고 탄소제로와 금융안정을 기하는 금융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sup>6)</sup> 요소별 구성항목을 보면 환경에는 생물다양성 보존, 오염방지, 순환경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사회요인에는 인권, 불평등, 포용성, 노동관계, 인적자본 및 지역사회 투자를, 지배구조는 경영구조, 종업원 관계, 임원보수 등을 각각 포함한다.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는 지속가능금융을 ESG 이슈를 감안한 투자 및 금융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환경관련 금융을 녹색금융으로, 녹색금융 중에도 기후변화관련 금융을 기후금융으로 정의하고 있다.

IMF는 지속가능금융을 ESG 원칙을 사업 의사결정, 경제개발 및 투자전략에 적용하는 모든 금융활동(incorporation of ESG principles into business decis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strategies)<sup>7)</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지주사(국민, 우리, 신한, 하나)들은 지속가능금융을 ESG와 관련된 모든 투자 및 금융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지속가능금융채권(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동 조달자금을 ESG 관련 대출, 프로젝트 투자 등에 사용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국내외 기관들의 지속가능금융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금융은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증권 발행, ESG관련 투자 및 금융활동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5) Sustainable Finance Progress Report 2018, 2019.3

6) EC 홈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overview-sustainable-finance\\_en](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overview-sustainable-finance_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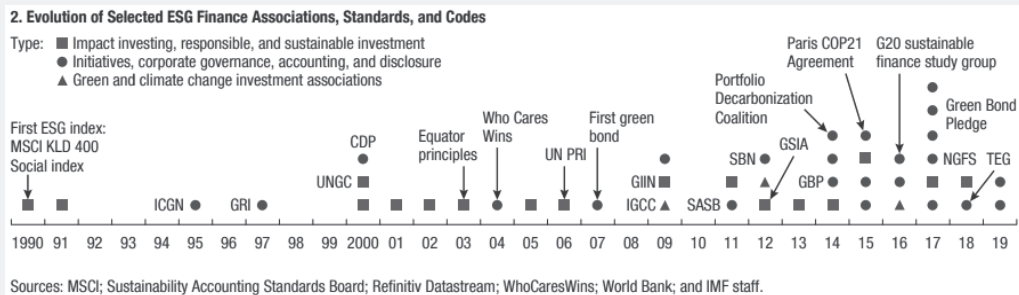
7)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9.

<참고 2>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과 ESG

- 지속가능성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가나 투자자들에게 혼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지속가능성이 추상적(vague)이라면 ESG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specific and measurable)하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 「지속가능금융」은 기업의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금융대출이나 투자이므로 ESG 금융 또는 ESG 투자로 불리기도 한다.
- ESG 금융관련 조직, 기준, 원칙 등의 진화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가능금융은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sup>8)</sup>

### ESG금융 관련 조직, 기준, 원칙 등의 진화과정



- 지속가능성 이슈도 과거에는 사회적 동기 중심으로 많이 다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환경관련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 202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글로벌경영에 가장 중시하는 ESG 항목을 조사한 결과 환경(60.0%), 사회(26.7%), 지배구조(13.3%) 순으로 나타났다.

8)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Ch.6), October 2019, IMF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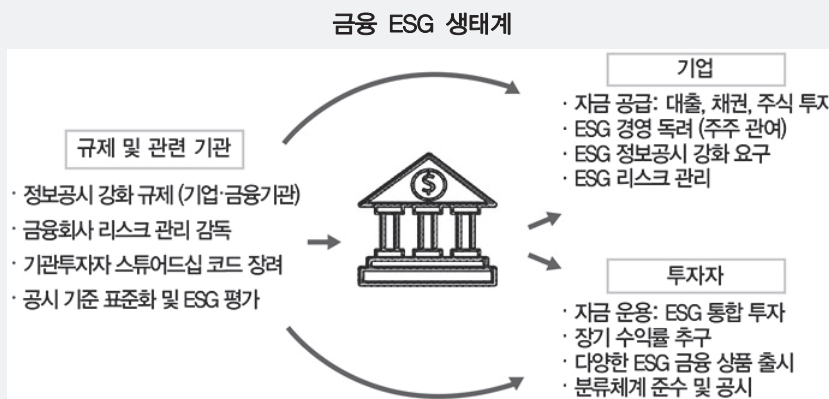
ESG 금융 생태계

금융 ESG 생태계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표준화 및 평가 기관들이 함께 하며 다양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먼저 자금 운용주체로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등 주주참여(engagement)를 통해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ESG 투자금융상품을 출시하고 ESG 분류체계를 준수하여 공시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자금을 공급받는 주체로 대출, 채권, 주식투자 등을 통해 조달하고 ESG 경영 추구, ESG 정보공시, ESG 리스크관리 등을 행하는 주체가 된다.

규제 및 관련기관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를 규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을 하며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 공시기준 표준화와 ESG 평가 표준지표 등을 마련하였다.



자료 : ESG 생태계 속 금융 시장의 중요 역할, 주간한국(21.11.19)

### III. EU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금융관련 제도 현황

#### 1. EU

EU는 EU 조약에 의해 지속가능발전을 EU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종 정책 수립 시에는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목적으로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은 지속가능금융의 법·제도적 기반 환경 구축, 금융리스크 관리 개선, 금융시장 관행 개선 등 3개 부문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의 지속가능금융 10대 액션 플랜

		액션 플랜
법·제도적 기반 환경 구축	1	EU 녹색분류체계 구축(EU taxonomy)
	2	녹색금융상품 식별기준과 인증제도 구축(Standards & Labels)
	3	프로젝트 투자 촉진(Investment Support)
	4	투자자문(적합성 평가, Investment Advice)
	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Sustainability benchmarks)
금융리스크 관리 개선	6	신용평가(Credit ratings)
	7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충실의무(Investment Duties)
	8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quirements)
금융시장 관행 개선	9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Sustainability disclosures)
	10	기업지배구조 촉진(Corporate governance)

자료 : EU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2018)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2021.12)

한편 EC는 공정한 지속가능한 ESG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규정과 지속가능공시 공시규정 등을 만들어 ESG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 가. ‘EU 녹색분류체계 규정(EU Taxonomy Regulation)’ 발효

2019년 12월 EU 회원국들은 유럽 그린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에 합의하였으며, 2020년 4월 EC가 녹색 분류체계 규정을 공식 채택하고 2020년 7월 발효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의 하나인 녹색분류체계 구축을 이행하였다.

EU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기관 또는 개인의 투자 유도와 그린워싱<sup>9)</sup>(녹색위장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되려면 6대 환경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등 녹색경제활동 판단기준들(다른 환경목표에 중대 피해 주지 않음, 최소한의 안전장치 준수, EC의 기술심사기준에 부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EU 녹색분류체계 규정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이나 기업의 친환경 수준을 평가한 후 지속가능투자 대상 여부와 투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EU Taxonomy Regulation	
6대 환경목표	녹색경제활동 판단기준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실질적 기여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 피해 안 줄 것 ③ 최소한의 안전장치 준수 (UN 기업 및 인권 지침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④ EU집행위 기술심사기준에 부합

## 나. 금융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규정(SFDR)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발효시켜 2021년 3월부터 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 및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투자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과하여 투

9)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친환경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SFDR은 2018년 EU가 발표한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과제 중의 하나로, 합동유럽감독위원회(ESAs)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운용이 지속가능성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을 줄이기 위해 기업, 국가,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분야의 18개 지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들 지표에는 기업(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발자국, 생물 다양성, 유해폐기물, 인권보호, 성차별, 부패방지, 대량살상무기 제조여부 등), 국가(투자대상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국제협약 및 국제법을 위반한 대자대상국 비중), 부동산(화학연료와 부동산자산의 연관성, 비효율에너지 부동산자산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다. 기업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제정(CSRD)

2021년 4월 EU 집행위(EC)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지침인 비금융 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보완 개정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의무를 강화하였다. CSRD는 NFRD보다 적용대상 확대, 공시에 대한 감사의무 및 상세보고 표준 도입, 지속가능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CSRD에 의한 공시의무 사항은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ESG 측면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사회와 역할과 다양성 등으로 이들 내용의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CSRD의 제정으로 적용대상기업이 종전의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7인 미만 기업 또는 연매출액 70만 유로 이하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무 공시 대상기업이 11,700개에서 49,000개로 크게 늘어났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 기업은 재무제표 등을 XHTML 방식으로 작성하고 디지털 분류시스템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에 태그를 달도록 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2020년 8월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녹색금융 과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녹색금융 추진 TF<sup>10)</sup>」를 구성하고 내부에 금융리스크 평가관리반, 녹색투자 활성화반, 기업공시 개선반 등 3개 실무그룹을 만들어 주요 정책과제별로 세부과제 이행을 시작하였다.

10) TF는 금융위원회, 환경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가. 녹색금융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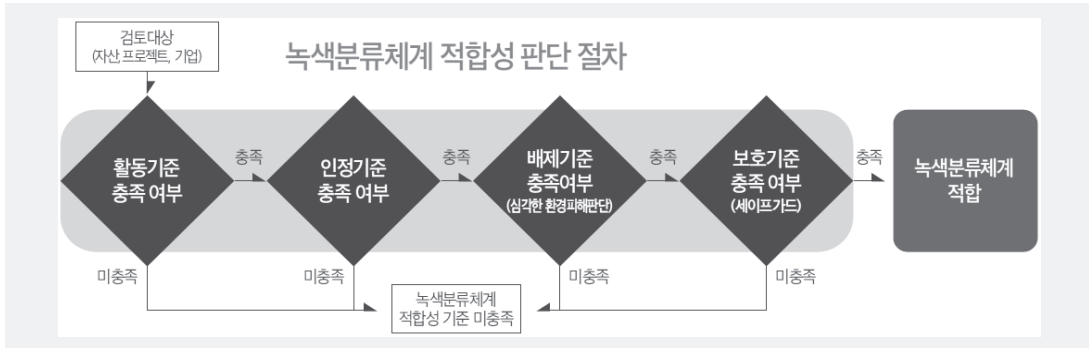
제3차 녹색금융 추진 TF회의(2021.1)에서는 12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2021년 중 동 실천 과제들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전략	실천과제	추진기관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1. 정책금융기관별 녹색 분야 자금지원 확충 전략 마련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2.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정책금융기관
	3.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4.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반영	환경부
2. 민간금융 활성화	5. 녹색분류체계 마련	환경부
	6.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금융위, 금융권 협회
	7. 녹색채권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환경부
	8.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계획」 수립	금융위, 금감원
3.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9.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환경부, 거래소
	10. 스튜어디십 코드 개정 검토	금융위
	11.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환경부
	12.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금융위 등

## 나. K 녹색분류체계

환경부는 그린위싱(녹색위장행위)을 예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1.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발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권이나 산업계에서는 이를 녹색채권 발행, 녹색 여신,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하게 된다.

녹색경제활동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자산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심각한 환경피해 여부), 보호기준(세이프가드)의 네 가지 기준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녹색경제활동 적합성 판단기준**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할 것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DNSH : Do No Significant Harm)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지 판단

## 다. ESG 관련 정보의 공개

###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sup>11)</sup> 거래소 공시 의무화 확대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기업지배구조 현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거래소 의무공시 대상이 2022년부터는 1조 원 이상 기업, 2024년부터는 5천억 원 이상 기업, 2026년 이후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 방안**

적용시기	2019-21년	2022-23년	2024-25년	2026년 이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1)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수록한 보고서

##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p>12)</sup> 거래소 공시 활성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를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2021년 1월 ESG 정보 공개 가이드نس(한국거래소)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자율공시를 권장하여 공개를 활성화하되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 공시가 확대된다.

### 〈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 주요 내용〉

-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 다. 한국형 ESG 지표(K-ESG)

K-ESG 가이드라인은 공시 의무 등 ESG 규율 강화, 기업 평가와 투자기준 등 기업의 투명한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시(5개지표), 환경(17개), 사회(22개), 지배구조(17개) 부문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ESG 이행 및 평가에 기업이 활용가능한 61개의 진단항목을 제시하고 있다.(2021.12월)<sup>13)</sup>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5)	•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검증, ESG 핵심이슈 및 KPI
환경(17)	•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12) 환경 관련 기회·위기 요인 및 대응 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개선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

13)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DJSI, MSCI, Sustainalytics 등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들의 수많은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고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 라. 금융기관의 ESG 조직 구축 및 장기전략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NH농협, 지방은행 등의 금융그룹들은 최근 이사회 내 ESG위원회와 그룹 내 ESG 경영추진협의회 성격의 기구를 설치하여 ESG 성과 평가, 보상체계 연동 등을 반영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NH농협은 2025년, KB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등은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 ESG 추진조직 및 전략(비전)

금융그룹	주요 내용
KB금융그룹	- 이사회 내 ESG위원회, ESG전략부
	- KB 그린웨이브 2030, Net zero S.T.A.R.(탄소중립)
신한금융지주	- 이사회 내 ESG전략위원회, 그룹 내 ESG추진위원회
	- FINANCE for IMPACT(친환경, 상생, 신뢰 부문 5대 impact)
우리금융지주	-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 그룹 내 ESG경영협의회
	- Plan Zero 100(탄소배출 제로, 2030 ESG금융 100조 원)
하나금융그룹	-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그룹 내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 Big step for tomorrow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촉진 등)
NH 농협은행	- 이사회 내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위원회, 그룹 내 동 협의회
	- ESG Transformation 2025(탄소중립, 농업중심 ESG 금융 15조 원)
기업은행	- 이사회 내 ESG위원회, 그룹 내 ESG추진협의회
	-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 은행
BNK금융그룹	- 이사회 내 ESG위원회, ESG 경영선포(20.7)
	-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DGB금융지주	- 이사회 내 ESG위원회, 그룹 내 ESG경영협의회, ESG실무협의회
	- ESG 경영으로 뉴노멀 선도
JB금융그룹	- 이사회 내 ESG위원회, 그룹 내 ESG협의회, ESG실무협의회
	-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가는 JB금융

## IV. 지속가능금융 통계

### 1. 사회책임투자채권(SRI Bond) 발행 통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금융채권 발행 통계는 2020년 6월 오픈한 한국거래소(KRX)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http://sribond.krx.co.kr>) 포털에서 공표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가치창출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녹색채권(Green Bond)은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은 사회가치 창출 사업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은 환경친화 및 사회가치 창출 사업 모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요건은 국내외 여러 민간자율원칙<sup>14)</sup> 중 하나를 택하여 그 원칙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책임투자채권은 외부평가 절차가 요구되며 발행자는 연 1회 이상 자금사용 현황 및 환경개선 효과 등에 대한 정기보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실적은 2018년 6월 자료부터 수록되어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포털에서 ESG 채권발행 건별 현황, 기관별 ESG 채권발행 현황, 신규상장 실적 및 누적상장 잔액 현황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동향)

사회책임투자채권 추이를 보면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 잔액은 각각 14.8조 원, 17.5조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각각 11.8조 원(393.3%), 12.1조 원(224.1%) 증가하였다. 사회적 채권도 127.3조 원으로 53.7조 원(73.0%)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채권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sup>15)</sup>을 제외할 경우 발행잔액은 33.1조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451.7% 증가하였다.

14)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 사회적 채권원칙,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과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기후채권기준,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

15)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 3종(보금자리론, 디딤돌론, 컨포밍론)을 재금융하기 위한 사회저당증권(MBS) 발행으로 전체 사회적 채권의 74%를 차지(2021년)

### 사회책임투자채권 잔액 추이

(조 원)

	2018말	2019말	2020말	2021말
녹색채권	0.6 (0.6)	2.1 (2.1)	3.0 (3.0)	14.8 (14.8)
사회적 채권	0.3 (0.3)	22.6 (2.2)	73.6 (6.0)	127.3 (33.1)
지속가능채권	0.4 (0.4)	2.1 (2.1)	5.4 (5.4)	17.5 (17.5)
합 계	1.3 (1.3)	26.8 (6.5)	82.1 (14.4)	159.6 (65.4)

주 : ( )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외 시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잔액

2021년 신규발행은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이 각각 12.5조 원, 12.4조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5조 원(1,150%), 8.7조 원(235.2%) 증가하였다. 사회적 채권 발행은 61.8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7.6조 원(14.0%) 증가하였으며 이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을 제외한 발행은 27.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23.3조 원(613.2%) 증가하였다.

### 사회책임투자채권 연도별 신규발행 추이

(조 원)

	2018년	2019년	2020년(A)	2021년(B)	증가율(%)
녹색채권	0.6 (0.6)	1.5 (1.5)	1.0 (1.0)	12.5 (12.5)	1,150.0
사회적채권	0.3 (0.3)	22.5 (1.9)	54.2 (3.8)	61.8 (27.1)	14.0 (613.2)
지속가능채권	0.4 (0.4)	1.8 (1.8)	3.7 (3.7)	12.4 (12.4)	235.2
합 계	1.3 (1.3)	25.8 (5.2)	58.9 (8.5)	86.7 (51.9)	47.2 (510.6)

주 : ( )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외 시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연간 발행실적

사회책임투자채권 신규발행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2021년 중 신규발행은 664건으로 전년보다 297건(80.9%) 증가하였다. 종류별로는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이 각각 120건, 172건으로 전년에 비해 110건(1,100%), 135건(364.9%) 증가하였고, 사회적 채권도 372건으로 52건(16.3%), 이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 제외 시 169건으로 전년보다 131건(344.7%) 증가하였다.

### 사회책임투자채권 신규발행 건수 추이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녹색채권	3 (3)	18 (18)	10 (10)	120 (120)
사회적 채권	1 (1)	169 (32)	320 (38)	372 (169)
지속가능채권	1 (1)	7 (7)	37 (37)	172 (172)
총 건수	5 (5)	194 (57)	367 (85)	664 (461)

주 : ( )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외 시의 사회책임투자채권발행 건수



### 사회책임투자채권 연도별 종류별 상장 현황(신규상장 및 잔액)

#### 사회책임투자채권 투자실적(신규상장)

2018년중 (개, 건, 조 원)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수	신규 상장금액
녹색채권	3	3	0.60
사회적채권	1	1	0.30
지속가능채권	1	1	0.35
전체	4(5)*	5	1.25

2019년중 (개, 건, 조 원)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수	신규 상장금액
녹색채권	5	18	1.47
사회적채권	6	169	22.47
지속가능채권	4	7	1.75
전체	14*	194	25.69

2020년중 (개, 건, 조 원)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수	신규 상장금액
녹색채권	4	10	0.96
사회적채권	7	320	54.23
지속가능채권	14	37	3.69
전체	23*	367	58.88

2021년중 (개, 건, 조 원)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수	신규 상장금액
녹색채권	60	120	12.50
사회적채권	54	372	61.84
지속가능채권	51	172	12.41
전체	153*	664	86.75

#### 사회책임투자채권 투자잔액(누적상장)

2018년말 현재 (개, 건, 조 원)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수	신규 상장금액
녹색채권	3	3	0.60
사회적채권	1	1	0.30
지속가능채권	1	1	0.35
전체	4(5)*	5	1.25

2019년말 현재 (개, 건, 조 원)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수	신규 상장금액
녹색채권	8	21	2.07
사회적채권	6	170	22.60
지속가능채권	5	8	2.10
전체	17*	199	26.77

2020년말 현재 (개, 건, 조 원)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수	신규 상장금액
녹색채권	9	31	3.03
사회적채권	9	471	73.59
지속가능채권	15	44	5.44
전체	29*	546	82.06

2021년말 현재 (개, 건, 조 원)

종류	발행 기관수	종목수	신규 상장금액
녹색채권	64	145	14.81
사회적채권	32	788	127.31
지속가능채권	56	216	17.49
전체	135*	1,149	159.61

주 : \*는 중복 제거 후 발행기관 수(누적 발행기관 수)  
 자료 : 한국거래소

<참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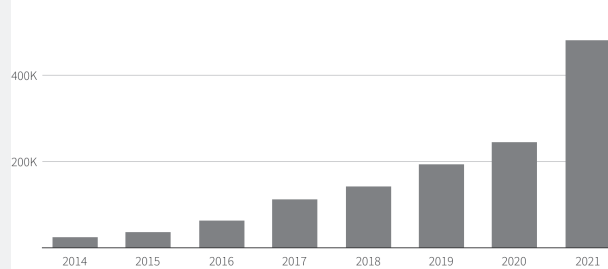
### 글로벌 ESG 회사채 발행 규모

지난해 COVID-19 전염병 발생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의 글로벌채권 발행규모는 2021년 중 8,590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5,343억 달러)에 비해 60.8% 증가하였다. <로이터 뉴스(2021.12.23.)>

\* 녹색채권 4,818억 달러, 사회적 채권 1,918억 달러, 지속가능채권 1,772억 달러

#### Global issuance of green b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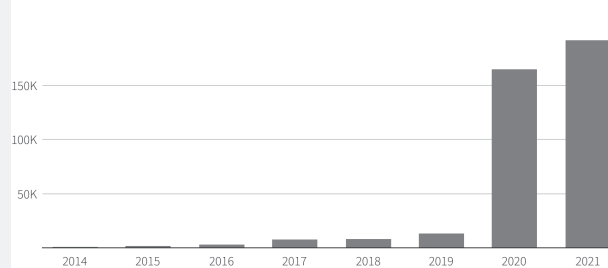
Proceeds amount in \$ millions



Source: Refinitiv Eikon

#### Global issuance of social b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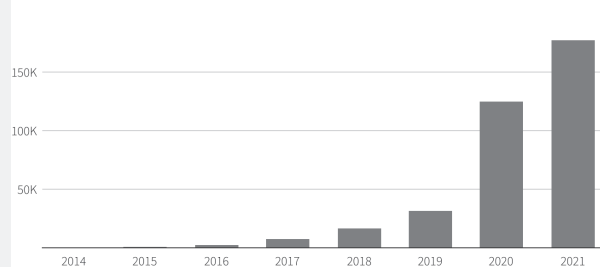
Proceeds amount in \$ millions



Source: Refinitiv Eikon

#### Global issuance of sustainability bonds

Proceeds amount in \$ millions



Source: Refinitiv Eikon

## 2. 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 통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금융기관이 발행한 ESG채권을 재원으로 ESG 대출, 투자 등에 운용하는 협의의 개념과 조달재원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모든 ESG 대출이나 투자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기업이 직접 발행한 ESG 채권발행은 포함하지 않았다.

### 가. 협의의 지속가능금융 통계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 사회적 채권원칙,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여신시장협회의 녹색여신원칙 등에 부합되게 발행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금융채권 발행실적은 국내채권의 경우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글로벌채권은 금융기관그룹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자료, 금융기관 홈페이지, 뉴스정보 등을 통해 수집한 후 금융그룹별로 종합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 (협의의 지속가능금융 동향)

금융기관그룹의 지속가능금융채권 발행규모는 원화채권과 글로벌채권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원화채권은 2021년 중 15조 9,920억 원 순증하여 전년보다 11조 7,920억 원 (185.0%) 증가하였으며 글로벌채권 발행은 2021년 98.8억 달러로 전년보다 37.8억 달러 (62.0%)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기후리스크가 증가하면서 ESG 채권발행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2021년 중 금융그룹별 국내 지속가능금융채권 발행은 기업은행 6조 6,300억 원, KB금융그룹 2조 4,100억 원 발행하였으며,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NH농협 등은 1조 원 이상 발행하였다. 또한 지방은행 그룹도 JB금융그룹이 1조 1,200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으며, DGB금융지주가 5,800억 원 발행하는 등 발행 첫해에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는 지속가능금융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 지속가능채권 발행의 경우 수출입은행 20.1억 달러, 산업은행 19.3억 달러, 하나금융그룹 14억 달러, KB금융그룹 13.9억 달러, 신한금융지주 13억 달러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그룹별 지속가능채권 연도별 발행 현황<sup>1)</sup>

	국내 채권 (억 원)				글로벌 채권 <sup>2)</sup> (억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KB금융그룹		5,000	6,500	24,100	3.0	9.5	15.7	13.9
우리금융지주		3,000	7,500	10,500		6.5	2.7	7.5
신한금융지주	2,000	-1,000	5,000	14,500		14.7	12.4	13.0
하나금융그룹			5,000	11,650		6.0	1.5	14.0
NH농협				11,270			5.0	6.0
기업은행		9,500	4,000	66,300	5.0		5.0	5.0
산업은행	6,000	2,000	13,000	2,600		5.6	5.0	19.3
수출입은행	3,500	-3,500			4.0		13.7	20.1
BNK금융그룹			1,000	2,000				
DGB금융지주				5,800				
JB금융그룹				11,200				
합 계	11,500	15,000	42,000	159,920	12.0	42.3	61.0	98.8

주 : 1) 금융그룹 발행실적 순증기준

2) 유로화, 호주달러화, 스위스프랑 채권은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

자료 : 한국거래소 등

<참고 5>

금융그룹별 ESG 해외채권 발행 현황(2018-2021년)

	시점	규모
KB금융그룹	2018. 10	3억 달러
	2019. 2	4.5억 달러
	2019. 7	5억 달러
	2020. 5	5억 달러
	2020. 7	5억 유로
	2020. 10	5억 달러
	2021. 5	8억 달러
우리금융지주	2021. 10	5억 유로
	2019. 5	4.5억 달러
	2019. 11	2억 달러
	2020. 10	4억 호주달러
	2021. 2	5.5억 달러
신한금융지주	2021. 3	2억 달러
	2019. 4	4억 달러
	2019. 6	5억 달러
	2019. 10	5억 유로
	2020. 3	0.5억 달러
	2020. 7	5억 달러
	2020. 9	4억 호주달러
	2020. 10	4억 달러
	2021. 4	5억 달러
하나금융그룹	2021. 5	5억 달러
	2021. 6	3억 달러
	2019. 1	6억 달러
	2020. 6-8	1.5억 달러
	2021. 1	5억 달러
NH농협지주	2021. 6	6억 달러
	2021. 10	3억 달러
기업은행	2020. 7	5억 달러
	2021. 7	6억 달러
	2018. 8	5.0억 달러
산업은행	2020. 6	5.0억 달러
	2021. 9	5.0억 달러
	2019. 7	5억 유로
	2020. 10	5억 달러
	2021. 1	7억 달러
	2021. 3	3억 달러
수출입은행	2021. 7	2억 CHF
	2021. 10	7억 달러
	2018. 3	4억 달러
	2020. 4	7억 유로
	2020. 9	5억 유로
	2021. 10	10억 달러
	2021. 10	8.5억 유로

자료 : 한국거래소, 각 금융기관의 보도자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참고 6〉

금융기관별 사회책임투자채권 국내상장현황(2021.12월말 현재)

(단위: 건, 조 원)

(52개 금융기관)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전체	
	종목 수	잔액	종목 수	잔액	종목 수	잔액	종목 수	잔액
한국주택금융공사	0	0.00	548	95.45	0	0.00	548	95.45
예금보험공사	0	0.00	8	2.78	0	0.00	8	2.78
국민은행	1	0.10	0	0.00	2	0.83	3	0.93
KB금융지주	1	0.11	0	0.00	2	0.50	3	0.61
KB증권	1	0.11	0	0.00	0	0.00	1	0.11
KB캐피탈	2	0.10	0	0.00	18	0.80	20	0.90
KB카드	0	0.00	19	1.01	0	0.00	19	1.01
신한은행	2	0.66	0	0.00	0	0.00	2	0.66
신한카드	2	0.18	7	0.36	0	0.00	9	0.54
신한캐피탈	0	0.00	0	0.00	8	0.75	8	0.75
신한금융투자	0	0.00	0	0.00	1	0.10	1	0.10
우리금융지주	0	0.00	0	0.00	1	0.20	1	0.20
우리은행	0	0.00	0	0.00	5	1.25	5	1.25
우리카드	0	0.00	12	0.63	0	0.00	12	0.63
하나은행	0	0.00	0	0.00	1	0.44	1	0.44
하나카드	0	0.00	4	0.10	5	0.30	9	0.40
하나캐피탈	0	0.00	0	0.00	13	0.60	13	0.60
하나금융투자	0	0.00	0	0.00	1	0.23	1	0.23
농협금융지주	0	0.00	2	0.37	0	0.00	2	0.37
농협은행	1	0.15	1	0.20	0	0.00	2	0.35
농협손해보험	0	0.00	0	0.00	1	0.10	1	0.10
NH투자증권	0	0.00	0	0.00	1	0.11	1	0.11
NH농협캐피탈	0	0.00	3	0.10	3	0.10	6	0.20
산업은행	3	0.53	7	1.75	0	0.00	10	2.28
산은캐피탈	2	0.08	0	0.00	0	0.00	2	0.08
기업은행	0	0.00	12	6.43	4	1.35	16	7.78
IBK캐피탈	0	0.00	0	0.00	4	0.20	4	0.20
부산은행	0	0.00	1	0.10	1	0.10	2	0.20
경남은행	0	0.00	1	0.10	0	0.00	1	0.10
대구금융지주	0	0.00	0	0.00	1	0.10	1	0.10
대구은행	0	0.00	0	0.00	3	0.30	3	0.30
대구캐피탈	0	0.00	0	0.00	4	0.18	4	0.18
전북은행	0	0.00	0	0.00	7	0.50	7	0.50
JB우리캐피탈	0	0.00	0	0.00	27	0.52	27	0.52
광주은행	0	0.00	0	0.00	2	0.10	2	0.10
롯데카드	0	0.00	7	0.35	3	0.10	10	0.45
롯데캐피탈	0	0.00	1	0.05	12	0.60	13	0.65
롯데렌탈	5	0.49	0	0.00	0	0.00	5	0.49
현대카드	11	1.01	0	0.00	7	0.50	18	1.51
현대캐피탈	12	0.95	0	0.00	10	0.51	22	1.46
미래에셋생명	0	0.00	0	0.00	1	0.30	1	0.30
미래에셋증권	0	0.00	1	0.10	0	0.00	1	0.10
미래에셋캐피탈	0	0.00	0	0.00	3	0.10	3	0.10
비씨카드	0	0.00	0	0.00	2	0.05	2	0.05
애큐온캐피탈	0	0.00	0	0.00	4	0.14	4	0.14
엠캐피탈	0	0.00	0	0.00	4	0.17	4	0.17
오케이캐피탈	0	0.00	2	0.05	0	0.00	2	0.05
메리츠캐피탈	0	0.00	0	0.00	6	0.51	6	0.51
한국투자증권	1	0.15	0	0.00	0	0.00	1	0.15
삼성카드	0	0.00	0	0.00	4	0.20	4	0.20
삼성증권	1	0.10	0	0.00	0	0.00	1	0.10
교보생명	0	0.00	0	0.00	1	0.47	1	0.47
합 계	45	4.72	636	109.93	172	13.31	853	127.96
(주택금융공사 제외 시)	(45)	(4.72)	(88)	(14.48)	(95)	(9.59)	(305)	(32.51)

자료 : 한국거래소

## 나. 광의의 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 통계

광의의 지속가능금융은 ESG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ESG 대출, ESG 투자(PF대출 포함), ESG 자산운용 등의 실적으로 이루어진다.

ESG 대출은 은행의 ESG 기업 대출, 소매금융 대출, 서민금융 대출 등을 포함하며 카드사, 생명보험사, 캐피탈사 등의 대출도 포함한다. ESG 투자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타 일반 ESG 투자 등을 포함한다.

광의의 지속가능금융통계는 각 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보도자료, 뉴스 등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개자료에 대해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ESG 금융의 구성항목이나 보고형식이 자유롭고, 동일 항목도 포괄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개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ESG 금융통계는 정확도가 낮으므로 이용상 유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KB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등 4개 금융그룹의 2020년 중 ESG 금융자료를 수집하여 광의의 지속가능금융 동향을 살펴보았다.

### (광의의 지속가능금융\* 동향)

\* KB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등 4대 금융그룹 기준임

2020년 중 4대 금융그룹의 ESG 채권발행, 대출, 투자, 자산운용 모두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2019년 5조 1,339억 원에서 2020년 6조 6,671억 원으로 29.9% 증가하였다. ESG 대출은 25조 9,168억 원에서 34조 529억 원으로 31.4% 증가하였다. 또한 ESG 자산운용은 6조 3,885억 원에서 7조 5,271억 원으로 17.8% 증가하였다.

반면 ESG 투자는 2019년 14조 1,296억 원에서 2020년 14조 7,102억 원으로 4.1%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하나금융그룹(93.8%), 우리금융지주(24.0%), 신한금융지주(17.2%) 등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이 9조 3,309억 원에서 7조 9,427억 원으로 14.9% 감소한 데 기인한다.



## 주요 금융그룹의 광의의 지속가능금융 현황

### (1) 채권

(억 원, %)

그 룹	ESG 채권 발행			채권총액 2020 (B)	ESG비중 (A/B, %)
	2019	2020 (A)	증가율		
KB금융그룹	15,982	30,589	91.4	185,000	16.5
우리금융지주	10,500	12,346	17.0	107,023	11.5
신한금융지주	17,907	16,936	-5.4	114,066	14.8
하나금융그룹	6,900	6,800	-1.4	269,562	2.5
소 계	51,339	66,671	29.9	675,651	9.9

### (2) 대출

(억 원, %)

그 룹	ESG 대출			대출총액 (2020)	ESG비중 (2020)
	2019	2020	증가율		
KB금융그룹	86,260	130,346	51.1	2,996,654	4.3
우리금융지주	18,053	22,900	26.8	2,619,800	0.9
신한금융지주	142,537	156,785	10.0	1,894,661	8.3
하나금융그룹	12,318	30,498	147.6	3,026,900	1.0
소 계	259,168	340,529	31.4	10,538,015	3.2

### (3) 투자(PF 투자 포함)

(억 원, %)

그 룹	ESG 투자			투자총액 (2020)	ESG비중 (2020)
	2019	2020	증가율		
KB금융그룹	93,309	79,427	-14.9	3,302,559	2.4
우리금융지주	7,862	9,745	24.0	69,947	13.9
신한금융지주	25,891	30,342	17.2	104,004	29.2
하나금융그룹	14,234	27,588	93.8	864,405	3.2
소 계	141,296	147,102	4.1	4,340,915	3.4

### (4) 자산운용

(억 원, %)

그 룹	ESG 자산운용			자산운용총액 (2020)	ESG비중 (2020)
	2019	2020	증가율		
KB금융그룹	18,255	19,693	7.9	450,264	4.4
우리금융지주	10,474	6,882	-34.3	315,077	2.2
신한금융지주	24,616	42,676	73.4	585,839	7.3
하나금융그룹	10,540	6,020	-42.9	350,292	1.7
소 계	63,885	75,271	17.8	1,701,472	4.4

주 : 신규취급 대출 또는 투자 기준

## 참고문헌

- 공경신(2021.4), 「유럽의 지속가능금융공시 최종보고서 및 기술표준 초안 주요 내용과 전망」,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포커스 2021-7호)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 2019」,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금융위원회, 각 금융기관협회 (2021.12),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2021.1),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환경부 (2021.1),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 금융투자협회(2020.6),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5),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대한상공회의소(2021.5),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1호)
- 박영석·이효섭(2021.5),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자본시장연구원 (Issue Report 21-10)
- 박혜진(2020.10), 「국내 ESG 펀드의 현황 및 특징 분석」, 자본시장연구원(이슈보고서 20-28호)
- 산업통상자원부(2021.12.1. 보도자료), 「K-ESG 가이드라인」 발표
- 송지혜(2019.8),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기초자료 19-13)
- 심수연(2020.10), 「EU의 ESG 공시 규제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포커스 2020-23호)
- 양춘승외 9인(2019.11),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장기 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용역보고서)
- 윤경수(2020.10), 「해외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추진배경과 시사점」, KDB 미래전략연구소(산은 조사월보 제779호)
- 이수환(2021.12),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 (입법정책보고서 102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인형(2021.5), 「ESG 평가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09호)
- 임소영(2020.11), 「그린뉴딜의 기준, 녹색분류체계의 글로벌동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제 2020.11월호 산업경제분석)
- 임수빈(2021.2), 「지속가능경영의 최근 트렌드와 금융기관 사례 분석」, KDB 미래전략연구

소(산은 조사월보 제783호)

- 임수빈(2021.4), 「EU 분류체계의 은행산업 적용과 시사점」, KDB 미래전략연구소(산은 조사월보 제785호)
- 임형석(2021.1), 「지속가능 금융 현황과 향후 과제」, 금융연구원(금융브리프 30권 3호)
- 최영민, 최희정(2018), 「국민연금 책임투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연금공단(정책보고서 2018-07)
- 한국거래소(2021.1),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
- 한국무역협회(2021.4), 「EU의 ESG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KITA MARKET REPORT
- 한국은행(2021.10),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 KB 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8-2020년 각 연도)
- 신한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8-2020년 각 연도)
- 우리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8-2020년 각 연도)
-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8-2020년 각 연도)
- IMF(2019.10), 「Sustainable Finance」,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Ch.6)
- Boffo, R., and R. Patalano (2020),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 OECD Paris, [www.oecd.org/finance/ESG-Investing-Practices-Progress-and-Challenges.pdf](http://www.oecd.org/finance/ESG-Investing-Practices-Progress-and-Challenges.pdf)
- UNEP(2019.3), 「Sustainable Finance Progress Report 2018」